

## 현직 회장

## 이동형

(주)스타코 회장

- 1992.01~현재 스타코 회장
- 1992.01~현재 대한조선공사 이사
- 1999.12 부산광역시 조신기자재 육성자문위원
- 2002.03 조신기자재공업 협동조합 이사
- 2008.02~현재 조신기자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 2008.03 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조신기자재공업 협동조합 연구원 이사
- 2008.11 미래희망포럼 공동의장
- 2009.12~2011.12 제14대 대한민국 ROTC 중앙회 회장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구가 보급된 시기는 1910년으로 추정된다. 1925년 이후 강습회나 운동 장려를 위한 운동부 부설이 속속 이뤄지면서 각종 배구경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조선배구협회 경기단체 설립으로 몇 개에 불과했던 배구팀들이 일약 인기종목으로 급부상하면서 거의 모든 학교에 배구부가 신설됐다.

당시 부산에는 동래고와 남성여고가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냈으며, 1950년대 남고부에서는 부산고, 부산동성고, 동래고, 부산상고, 부산공고, 영남상고가, 여고부에서는 경남여고, 남성여고 등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1960년대에는 9인제 극동식에서 6인제 국제식으로 경기방식이 바뀌면서 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산배구협회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1963년 3월 1일, 6·9인제가 병행됐던 이 시기의 부산배구는 9인제보다 6인제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중·고 배구의 붐과 함께 초등학교에도 배구 선수육성책이 실시되는 등 번개가 많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 말까지는 부산배구협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당시 부산배구협회장에 취임한 백제갑 회장은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배구팀의 육성과 지원에도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1976 몬트리올올림픽대회 구기 종목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당시 국가대표 배구팀에는 부산 출신의 164cm의 단신으로 장신의 선수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남다른 기량을 지닌 조혜정(남성여고) 선수가 포진해 있었다. 일본과의 준결승전에 이어 헝가리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종횡무진 코트를 누볐던 조혜정 선수는 종이리 부상을 딛고 팀에 값진 동메달을 안긴 일등공신이었다.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조혜정 선수는 '날으는 작은 새'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배구를 일약 전 국민적인 인기스포츠로 끌어올렸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온 나라 안팎으로 스포츠 열풍이 불었다. 배구 역시 1980년대 대통령배 배구대회가 출범하면서 신인선수들이 대거 등

## 역대 회장

제1대	대한배구협회	1963.03.01~1963.12.31
제2대	대한배구협회	1964.01.01~1967.12.31
제3대	(주)경남섬유	1968.01.01~1971.12.31
제4대	(주)경남섬유	1972.01.01~1975.12.31
제5대	백제갑	1976.01.01~1979.12.31
제6대	백제갑	1980.01.01~1983.12.31
제7대	백제갑	1984.01.01~1987.12.31
제8대	이금우	1988.01.01~1989.12.31
	이정우	1990.01.01~1992.06.31
제9대	김용정	1993.01.01~1996.12.31
제10대	김용정	1997.01.01~2000.12.31
제11대	장한룡	2001.01.01~2004.12.31
제12대	박한탁	2005.01.01~2006.12.31
	황종래	2007.01.01~2008.12.31
제13대	황종래	2009.01.01~2009.02.28
	박명훈	2009.03.01~2012.12.31
제14대	이동형	2013.01.01~현재

장했으며, 부산에서도 대회 유치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강만수, 강두태, 박기원(성지공고), 이경석, 이채연, 박삼용(동성고), 이은경, 김정순, 김귀순(남성여고), 윤정혜(덕명여상) 등이 부산출신 국가대표선수로 맹활약했고, 이들은 국제대회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부산배구협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제8대 이금우, 제9·10대 김용정 회장에 이르기까지 꿈나무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수한 선수가 지속적으로 배출했으며, 부산 출신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만 해도 제회경을 비롯해 박선출(동성고), 김병선, 박종찬(성지공고), 강혜미, 장소연, 박수정(경남여고), 강은영(남성여고) 등 다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돼 인기를 끌었던 비치발리볼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1990년 7월 31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첫 대회를 개최했다.

##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이동형	(주)스타코 회장
상임부회장	권영중	삼광산업(주) 대표이사
실무부회장	전상천	반여고등학교 교사
부회장	백규석	자영업
	이수태	(주)파나시아 대표이사
	장원용	변호사
	탁태식	동남정공(주) 대표이사
전무이사	정현식	동성고등학교 교직원
	곽승철	경남여자고등학교 지도자
	김건우	사하초등학교 교사
	김성근	명륜초등학교 지도자
	김성록	스타코(주) 인사총무
	김성면	시체육회 배구팀 감독
	김종관	경남중학교 지도자
이사	마석순	자영업
	박재한	금정중학교 지도자
	송재영	자영업
	유대석	수정초등학교 지도자
	이동호	가야초등학교 지도자
	임광섭	모리초등학교 지도자
	조현민	경성대학교 교수
최재호	한국 프로배구연맹 심판	
감사	안상식	성지고등학교 교장
	이상엽	금정중학교 교장

1990년대 후반 한국 경제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부산배구협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배구가 출범했으나, 실업팀 해체로 선수들의 등용문이 좁아지면서 프로팀에 입문하는 선수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배구협회는 배구부 육성에 열의를 불태웠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수한 선수들을 대거 배출해왔다.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출신 국가대표선수로는 박재한, 이형두, 문성민, 곽승석, 최홍석(동성고), 김귀현, 김세영, 이정욱, 윤혜숙, 임효숙, 양효진(남성여고), 구기란(경남여고) 등이 있다. 현재 부산배구협회에는 초중고 및 일반부 총 16개 팀과 141명의 선수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6 / 162	5 / 36	4 / 43	4 / 47	1 / 10	2 / 26
2008	17 / 165	6 / 46	4 / 42	4 / 42	1 / 9	2 / 26
2009	15 / 149	5 / 36	4 / 39	4 / 45	1 / 12	1 / 17
2010	14 / 140	5 / 51	3 / 34	4 / 36	1 / 10	1 / 9
2011	16 / 149	5 / 48	4 / 35	4 / 33	1 / 12	2 / 21
2012	16 / 141	5 / 39	4 / 35	4 / 34	1 / 12	2 / 21

#### 국제대회 성적

연도	대회명	순위	수상자
1966	방콕아시아경기대회	2	서희숙
1967	세계여자선수권대회	3	서희숙
1970	방콕아시아경기대회	2	김길태
		2	조혜정
1974	세계여자선수권대회	3	조혜정
1974	테헤란아시아경기대회	2	박기원, 강만수
		2	조혜정
1976	몬트리올올림픽대회	3	조혜정
		3	조혜정
1978	방콕아시아경기대회	1	박기원, 강만수, 강두태
		3	김희복
1982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	3	강만수
		3	이은경, 김정순
19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2	강두태
		3	이은경, 김정순
1990	북경아시아경기대회	2	박삼용
		2	김귀순
1994	히로시마아시아경기대회	3	박삼용, 제희경, 김병선, 박종찬
		1	강혜미, 장소연, 박수정

연도	대회명	순위	수상자
1998	방콕아시아경기대회	2	박선출
		2	강혜미, 장소연, 박수정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1	박재한
		2	강혜미, 장소연, 구기란
2006	도하아시아경기대회	1	문성민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3	문성민
		2	김세영, 양효진

####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6(1,066)	0/0/2	4(626)	-	5(440)
2011	6(959)	0/1/0	-	8(191)	3(768)
2012	7(823)	0/0/1	7(189)	9(0)	4(635)

